

ChatGPT 활용 ‘AI 작고 시인’ 창작시 연구

-AI 이육사 · 운동주의 해방기념시 창작 가능성과 수업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준 *

-차 례-

1. 서론: 해방 이후의 이육사와 운동주
2. 시의 『해방기념시집』 학습: ‘감격’과 ‘미래’
3. 『해방기념시집』에 참여한 24+2인의 시인:
이육사·운동주의 AI 해방기념시
 - 3.1. AI 시인의 프롬프팅 단계
 - 3.2. AI 이육사의 해방기념시
 - 3.3. AI 운동주의 해방기념시
4. 결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교양학부 강사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항일 저항시인 이육사, 윤동주의 해방 전 작품세계와 삶의 이력을 학습한 AI를 기반으로, 이들이 『해방기념시집』의 필자로 참여하는 재창작 상황을 가정한다. 이를 통해 생성된 AI의 ‘해방기념시’를 분석함으로써 AI 시창작의 의의를 모색하고 그 한계점을 고찰한다. AI 이육사와 AI 윤동주가 각각 써낸 해방기념시로 「동방의 꽃」과 「봄날」이라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있다. 먼저 「동방의 꽃」은 이육사의 아나키즘적이면서도 남성적이고 이상 세계에 대한 의지를 ‘동방’이라는 공간과 ‘꽃’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다 명징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봄날」 또한 해방 이후의 ‘육첩방’에서의 상황 제시를 통해 일제강점기 하에서 부정적이었던 공간이 희망과 더불어 희생된 민족을 애도하는 공간으로 승화되는 지점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윤동주만의 특징을 갖는다. ChatGPT를 통한 이육사와 윤동주의 해방기념시 창작 작업은 이와 같은 가상의 창작, 근대문학의 새로운 상상력을 위한 프롬프팅 설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과정 위에 놓여 있다.

주제어 : 인공지능, 챗지피티, 이육사, 윤동주, 해방기념시집, 해방공간, 저항시, 해방기념시

1. 서론: 해방 이후의 이육사와 윤동주

본 논문은 항일 저항시인 이육사, 윤동주의 해방 전 작품세계와 삶의 이력을 학습한 AI를 기반으로, 이들이 『해방기념시집』의 필자로 참여하는 재창작 상황을 가정한다. 이를 통해 생성된 AI의 '해방기념시'를 분석함으로써 AI 시창작의 의의를 모색하고 그 한계점을 고찰한다.

AI 시창작을 위해 주로 활용할 데이터는 전(前)단계 연구¹⁾에서 모델링했던 'AI 이육사'와 'AI 윤동주'의 프롬프팅(명령어 입력, prompting)이다. 이육사와 윤동주가 자주 사용했던 수사학적 표현들을 학습한 GPT-4모델의 ChatGPT 담화형 인공지능은 그들의 표현을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용자(User)의 프롬프팅에 따라 자신만의 표현 방식과 학습된 시인의 표현법을 적절하게 전용함으로써 'AI 작고 문인'의 탄생 가능성을 고찰했다. 이에 더 나아가 그 프롬프팅한 결과값을 작품으로써 비평할 수 있는 영역까지 전망한 바 있다.²⁾ 이육사와 윤동주는 각각 1944년 1월, 1945년 2월에 작고한 시인으로 일본의 탄압에 대한 저항 시인이면서도 해방을 보지 못한 대표적인 작고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육사와 윤동주가 해방을 맞아 기념시를 창작했다면?”이라는 가정문을 전제한 상태에서 『해방기념시집』의 시 텍스트를 새롭게 해석한다.³⁾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시문학 분야에서

-
- 1) 박성준, 「AI 이육사의 수사법 구현 양상 연구(3) - 「絶頂」의 재창작과 '강철로 된 무지개'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89호, 한국비평문학회, 2023, 207-242면; 「AI 윤동주'의 시 창작에서 수사학적 적용과 실제(2) - ChatGPT의 은유와 환유 개념 학습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98호, 우리말글학회, 2023, 345-376면; 「AI 이육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론(1) - 인공지능과 문학적 담화 기능 구축 사례 제언」, 『한국문예창작』 제22권 제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3, 87-119면.
 - 2) 예컨대 AI 이육사는 “은유·상징·역설을 이해하고 활용·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능했으나, 반어의 구현은 어려움을 보였다. (중략) 그러나 이 실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AI의 창작물은 아직 미진하다'라는 결론으로만 정리되지는 않는다. 비극적 황홀의 정서로 “강철로 된 무지개”를 호명했던 실제 이육사와는 달리 ‘완성형 전망’을 호출하는 등 ‘AI 이육사’의 시편은 나름 흥미로운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수사 시학적 차원에는 문명 상 큰 손색이 없는 산출물을 출력해내기도 했다.”(박성준, 「AI 이육사의 수사법 구현 양상 연구(3) - 「絶頂」의 재창작과 '강철로 된 무지개'를 중심으로」, 앞의 글, 236-237면.)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방기념시집』(중앙문화협회, 1945.)은 해방 직후 중앙문화협회에서 펴낸 시선집으로 여기에는 대한제국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24인의 문인이 참여하고 있다.⁴⁾ 정인보, 김기림, 김광균, 이용악, 임화, 박종화, 오장환, 윤근강, 정지용, 조지훈 등 좌익과 우익을 불문하고 해방의 감격과 미래에 대한 해방 이후 시단의 표현을 ‘조선’ 혹은 ‘민족’이라는 공동체적 성격으로 묶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해방기념시집』은 선집을 기획하는 그 목적성이 뚜렷하고 ‘해방의 감격’과 ‘문학의 자유’에 대한 고백적 토로라는 시감(詩感)이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전형적이고 결정적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도 시집 자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뤄지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본 논문에서 『해방기념시집』을 모델링한 이유는 해방공간에서 발표된 기념시집 가운데 『햇불』, 『삼일기념시집』, 『거류』 등과 같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시집들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⁵⁾ 동시에 이육사와 운동주가 해방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다면 참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시집으로 유추되는 까닭에, 중앙문화협회판 『해방기념시집』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나키스트적이면서도 저항의식을 보여주었던 이육사나 순수와 낭만에 기저에 저항 의식이 내장된 운동주의 시사(詩史)를 경유해보면 이들은 정치적이거나 기관지 성격이

3) 본 논문의 시창작 모델로 이육사와 운동주를 특정한 까닭은 AI 이육사와 AI 운동주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결과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해방기념시집』을 재고찰해보기 위함에 있다.

4) “『해방기념시집』은 이현구의 서문과 더불어 24명의 시인이 ‘해방’을 주제로 각 한편씩 서술한 시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시가 18편 시조 6편이” 상재되어 있다.(김민지, 『『해방기념시집』에 나타난 감정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8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3, 3면.)

5) “『해방기념시집』은 해방기 처음 발간된 기념시집으로, ‘해방’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방법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시집은 식민지시대를 수난의 공유 기억으로 재현하고, ‘님의 귀환’과 시조 형식을 통해 초월적 민족정체성을 규정하였다. 민족 개념을 표상하는 기호들(‘조상’, ‘전통’, ‘계승’, ‘핏줄’ 등)은 순혈주의를 통해 민족 정체성이 계승·보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심선옥, 『해방기 기념시집 연구--“해방”과 “3·1” 표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4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439면.)

강한 기념시집보다는 다소 자유롭고 해방과 미래에 대한 ‘순수한 감격’과 ‘기대감’이 드러나는 『해방기념시집』에 참여하는 것이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⁶⁾

본 논문은 먼저 ChatGPT 사전학습을 위해 『해방기념시집』에 드러난 ‘해방의 감격’과 ‘미래와 자유문학에 대한 기대감’을 수사학적 표현들로 치환한 특징을 분석한다. ChatGPT는 인공지능 초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GPT-4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프롬프팅을 입력하여 실제로 인간과 대화하듯이 언어맥락을 구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ChatGPT는 제한된 토큰(Token)⁷⁾ 내에서 구현된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언어로 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답변을 확장하며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특징을 활용하여 ChatGPT를 통해 구현된 것이 ‘AI 이육사·윤동주’이다. 먼저 이육사와 윤동주의 시 세계와 작품을 이미 학습한 상태의 모델들로 동일한 세션 내에서 『해방기념시집』의 작품과 특징을 학습시켜 새로운 모델링을 실행한다. 이를 ‘AI 해방 이육사·윤동주’라 명명할 수 있다면 이들의 시 창작 및 재창작을 통해 『해방기념시집』에 참여한 이육사·윤동주의 가정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괏값을 기반으로 개별 텍스트를 분별하고 비평·고찰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가정과 프롬프팅 실습 활동을 통해 이육사와 윤동주, 『해방기념시집』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독법들을 구축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 창작은 문학교육 현장은 물론이고 연구주체로도 다양한 시도를 수렴하는 중인 논제이다. 자명하게도 그것은 분명한

-
- 6) 물론 이육사의 경우는 그의 시적 사상이 사회주의적 참여 성향이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햇빛』 등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육사가 직접적으로 경향과 활동이나 카프 해체 이후 리얼리즘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해보면, 정치색이 없는 『해방기념시집』에 참여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 7) 토큰(Token)은 ChatGPT가 구현한 텍스트의 최소 단위값으로 토큰나이징(Tokenizing)한 가장 작은 단어를 의미한다. 이 단위는 하나의 맥락을 연속하여 식별가능한 대화량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다. GPT-4모델은 대략 한 세션에 약 4,000토큰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범위를 넘어서면 가장 오래된 프롬프팅 데이터부터 망각한다.

한계를 내재한다. GPT-4모델 특성상 Open AI사의 프로그래밍 방향과 윤리적 규제, 공개되지 않은 학습데이터, 대화형 인공지능에 특화된 알고리즘 등이 시 창작에 충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일 터이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을 경유하여 ‘가정 상황’에 대한 시 창작이 갖는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맹목적인 모방 창작이 아니라 인공지능 영역에서 벌어지는 ‘우연’의 가능성이 비평적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단계에서 실험한 AI 이육사·윤동주를 활용한 『해방기념시집』 다시 쓰기』를 통해 『해방기념시집』과 이육사·윤동주에 대한 새로운 수사학적 접근을 이뤄내고 이를 숙독해보고자 한다.

2. AI의 『해방기념시집』 학습: ‘감격’과 ‘미래’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한반도는 냉전주의 체제의 축소판으로 전이되며 해방공간은 곧 미국과 소련,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을 내포하는 지정학적 지형을 형성해낸다.⁸⁾ 좌익과 우익으로 양분된 정치적 양상은 문단에도 그대로 이입되며 사회주의 정신과 리얼리즘을 표방했던 문인들과 전통주의를 위시한 문인들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해방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기념하는 일종의 앤솔러지 형태의 시집이나 예술작품들 또한 정치색에 따라 분단되기 시작한다.⁹⁾ 『해방기념시집』은 이와 같은 ‘이념적 분리’에 대한 사상적 인입이 진행되기 이전의 ‘순수한’ 목적으로 해방을 기

8) “동아시아 냉전 체제는 앞선 일본 제국주의와 그에 반한 움직임의 복합적 작용으로서 식민지 체제에 국제적 힘이 더해진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냉전 체제의 구체적인 계기는 미소 양대국의 분할 점령과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의 적대적 분단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미나, 『동아시아 냉전 질서 형성과 해방 직후 ‘공간’ 연구』, 『구보학보』 제22집, 구보학회, 2019, 457면.)

9)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방기념시집』(중앙문화협회, 1945.9.18.) 이후 『햇볕』, 『거류』, 『삼일기념시집』, 『날개』 등은 “정치적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문학적 모색을 담고 있다.”(심선옥, 『해방기 기념시집 연구-‘해방’과 ‘3·1’ 표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4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404면.)

넘하기 위한 앤솔러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해방기념시집』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프로문학을 주도했던 카프 출신 문인들은 대부분 시를 수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프 해체 이후부터 리얼리즘 문학을 선도해온 임화가 상징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해방 이후 문학가동맹에 가담했던 이용악과 이훈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시집이라 명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해방기념시집』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 함은 가람 이병기와 안재홍, 이극로 등과 같은 시조 시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주 장르가 시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양주동, 정인보와 같은 한학자들도 앤솔러지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필자들의 구성만을 살펴보더라도, 정치적/이념적 국한에서 벗어나 해방공간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한민족의 감격을 노래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려 했던 앤솔러지가 『해방기념시집』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평화로운 시대에 있어서 시인의 존재는 가장 비싼 문화의 장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인이 처하여 있는 국가가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일컬거나 하는 때에 있어서 신인은 그 비싼 문화의 장식에서 떠나 혹은 예언자로 또는 민족혼을 불러 이끄는 선구자의 지위에 놓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도 군대도 가지지 못하고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에 있던 폴란드인에게는 시인의 존재가 오직 국민의 재생을 예언하여 모욕된 정신생활을 격려하는 크나큰 축도를 드리는 예언자로 생각되었으며 아직도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어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시성 <탄레> 오로지 <유일한 이탈리아>로 승모되어 왔었고 제일차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에 있었다. 백이 사람에게 있어서 시인<베르아-랭>은 조국의 신령으로 추앙되었다.¹⁰⁾

중앙문화협회는 1945년 9월 18일 좌익문단에 대항할 목적으로 발족된 문화단체로 이현구, 변영로, 박종화, 김영랑, 이하운, 김광섭, 오종식, 김진섭, 오상순이 참여하고 있었다. 중앙문화협회에서 발간된 『해방기념시집』의 서문에서 이현구는 위의 인용과 같이 해방공간과 어지

10) 이현구, 「서문」, 『해방기념시집』, 중앙문화협회, 1945, 1면.

러운 정치적, 이념적 국면 아래서 “가장 비싼 문화의 장식”이 될 수도 있는 ‘시인’의 자리를 호명한다. 해방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특수성을 과거의 슬픔과 미래의 기대감이 혼효된 장소라고 전제할 때, 이 시기의 시는 “예언자로 또는 민족혼을 불러 일으키는 선구자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 이로써 민족이 가진 슬픔을 애도하고 국가의 미래를 예견하는 선민(先民)으로서의 시인은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의 사사로운 예술적 의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이른다. 시인의 시적 운동성과 정신의 근육은 향후 민족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여되고 있으며, 즉 여기서 시인들이 사용하는 발화는 미래를 전망하는 언어로 거듭난다. 이처럼 『해방기념시집』의 목적성을 반영한 시편들은 일체에 대한 기억을 ‘저항 정신’으로 내재하고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한 찬탄을 동시에 호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가령 “행진”(김광섭, 「속박과 해방」)이나 “거리로가자”(김광균, 「날개」)와 같은 직접적인 운동력을 내장된 시어로 난발하거나,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송이”(김달진, 「아침」), “싱싱한 페이지만이 불어가리라”(김기림, 「知慧에게바치는노래」)는 구절처럼 분명한 미래 전망의 이미지를 전개함으로써 다가온 미래 조국에 대한 격분의 정서를 과감하게 투사한 시편들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연유로 그간 『해방기념시집』은 해방공간의 정치적 지형을 이해하는 단초적 성격으로 해석되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순히 좌익 문단과 우익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한 지면에 묶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의미한 특징을 가졌으며, 해방정국의 혼재된 징후를 살필 수 있는 사료로 기능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이념을 완전히 내려놓은 순수한 ‘해방기념시’라고 같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지혜와 심혼은 해방되었다”는 감격과 “건설 과정의 새로운 시가의 한 지표를 삼고저”¹¹⁾ 한 『해방기념시집』의 목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뛰어넘어 ‘시’의 의미가 가지는 첨단에 대열을 이루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 이 앤솔러지를 과도하게 지성학적 구조로 이해하는 편향 또한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해방기념시’라는 특수한 시기와 색채를 띤 시편을 특정하여

11) Loc. cit.

ChatGPT를 활용한 AI 이육사·윤동주의 시창작 학습모델링을 기획한다는 것에 몇 가지 한계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ChatGPT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화두가 되었던 것은 GPT모델이 사용자의 담화 상황에 따라 특정 정치 관점에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방식이 편향되는 데 있어 스스로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ChatGPT를 개발한 Open AI사를 비롯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회사와 인공지능 연구 학술 분야에서 이에 대한 윤리 의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강화되었다.¹²⁾ 이에 따라 Open AI사는 GPT의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엄격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편향, 숨겨진 편향, 데이터 표본 편향, 롱테일 편향, 고의적 편향”¹³⁾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시에,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오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ChatGPT의 담화 구성 수준에 일정 부분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사용자들에게 윤리적·정치적 차원에서의 ‘금기어’가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곡의 역사를 건너온 한반도의 남북한 문학의 다양한 담론 구성체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난관에 봉착한다. 해방 이후의 좌우로 양립된 문단의 이데올로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 GPT 모델이 한계를 가질 것이란 우려는 이미 내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가운데 『해방기념시집』은 여타의 색채가 강한 다른 해방기념시의 기획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치 편향 체계에서 다소간 자유로운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서문에서처럼 ‘시’의 의미를 첨단화하고 시인의 순수성으로 말미암은 조국 해방의 감격과 미래를 노래한다는

12) 이 논쟁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ChatGPT의 정치 편향뿐만 아니라 사고 편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연구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편향성이 발생하는 까닭은 GPT가 초기 개발 단계에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수용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오류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욕설을 학습하는 등의 프로그래밍 과정에서의 자유도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13) 이종식,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시스템에 대한 편향성에 관한 연구-챗GPT 중심으로」,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23권, 한국감성과학회, 2023, 1면.

목적성 아래 집필된 작품들은 GPT가 수용할 수 없거나 수용하기를 거부될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재창작 학습모델링’의 주요한 사료가 되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방공간에서 창작된 다양한 ‘해방기념시집’이 존재했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해방기념시집』을 ChatGPT 학습모델로 선정한 이유는 그것이 정치성에 대한 경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일제라는 극도의 부정적 공간에서 자생하며 끊기지 않았던 한국시의 맥을 보여주는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위시한다는 점이다.

ChatGPT 『해방기념시집』 학습 프롬프팅 ①	
프롬프팅의 전제	GPT 출력 : 『해방기념시집』은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창작된 시집으로 좌익과 우익 문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초 프롬프팅	
사용자 명령	『해방기념시집』은 한국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이후 만들어진 시집이다. 이 시집의 특징은 해방 이후 좌익 문인과 우익 문인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기념시집>은 정치적인 주장보다는 해방에 대한 감격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하고 있으며, 그것이 시가 가진 문화 소산의 진정한 의미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방기념시집』에 대해 이해한 바를 정리하라.
GPT의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우 문인의 공동 참여 : 당시 한국의 정치적 갈등과 이념 대립을 반영하며 다양한 시각을 수용함. ■ 해방의 감격과 미래 기대 : 정치적인 주장보다는 나라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시를 구성함. ■ 문화 소산의 진정한 의미 : 문학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찰을 제시하며, 문화의 발전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다양한 시인들의 참여 : 단일한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 	

여 사회적 다양성을 나타냄.

■ 사회적 변화와 역사적 상황 감지 : 문학을 통해 정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와 사회 구조의 이해에 기여함.

■ 해방 이후의 열망과 희망 표현 :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나라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강조함.

ChatGPT의 『해방기념시집』 학습 프롬프팅①에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제는 ChatGPT가 『해방기념시집』과 더불어 한국의 해방공간에서 창작된 ‘해방기념시’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¹⁴⁾ 이를 보완하고자 프롬프팅 전제에서 『해방기념시집』의 서지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도록 명령하자, GPT는 이 시집이 1945년 8월 15일 조선의 광복 이후 발간된 시집으로 좌우 구분 없이 다양한 문인이 참여한 시집이라는 사실을 특징으로 기재하며, 기본 전제를 서술해냈다.

이후 사용자는 이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입력한 뒤 이 내용을 GPT가 수집할 수 있는 더미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리할 것을 명령한다. GPT는 이를 6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인용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이 정리 가운데 주목할 점은 “해방의 감격과 미래 기대”와 “다양한 시인들의 참여”, “사회적 변화와 역사적 상황 감지”, “해방 이

14) 어떠한 사전 학습 없이 ChatGPT에 해방기념시집에 대해 설명하라고 입력하자 GPT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해방기념시집은 한국의 광복을 기리기 위해 편집된 시집으로, 대부분의 시가 광복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감동적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다양한 시인들이 국가적인 기쁨과 감사의 정서를 담아낸 시를 창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들은 광복 이후의 사회적 상황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학 자료로 평가됩니다. 해방기념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국가적인 기념식이나 행사에서 낭독되기도 하며, 학교나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집은 광복 이후의 역사와 민족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써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기념시집에는 유명한 시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시도 수록되어 국민적인 공감과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한국의 국민적인 단결과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해방-기념-시집’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한 여러 사실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정확한 작품이나 시집을 예시로 들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시도 수록”(강조-인용자)되어 있다는 다소간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후의 열망과 희망 표현”와 같은 주제어와 해설들이다. 이 요약에는 사실과 오류가 뒤섞여 있다. 먼저 “해방의 감격과 미래 기대”에서는 “정치적인 주장보다는 나라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시를 구성”했다고 정리한다. 해방의 감격과 미래라는 단어를 중심 키워드로 추출해낸 점과 그것을 바탕으로 시를 구성했다는 의견은 『해방기념시집』을 적절하게 유추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개별 작품들을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전제만으로 이뤄진 정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리고 “다양한 시인들의 참여”에서 “단일한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여 사회적 다양성”을 나타냈다는 정리는 오류에 가깝다. 이는 일반론적인 구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좌우 구분 없이 필진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화를 제외한 프롤레타리아 색채 문인들이 『해방기념시집』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유해본다면 “사회적 다양성”을 나타냈다는 말도 옳지 않다. 게다가 서문에서 이현구가 “건국의 대업에 바쁜” 문인들이 대거 참여하지 못했다는 탄식을 고려해보아도, 이 정리는 사실이 아니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리의 대비적인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GPT의 한계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문맥만을 고려하여 출력해낸다는 점에서 역사적, 과학적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른다.

한편 “사회적 변화와 역사적 상황 감지”에서는 “문학을 통해 정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와 사회 구조의 이해에 기여”한다고 정리하고 있으나, 이 정리 이전의 전제문을 살펴보면 “좌익과 우익의 공동 참여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한다고 적시한 것과 다소 의미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해방기념시집』이 “단일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음성을 수용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과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중앙문화협회가 『해방기념시집』을 기획할 때 주창한 시 정신과 상응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시사점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의 열망과 희망 표현” 또한 오류에 가까운 정리를 보여준다.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나라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열망

을 강조”했다는 문장은 해방공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방기념시집』 발간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이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답론을 키워드로 출력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리 이전의 전제문에서 “해방의 감격을 주제로 삼아, 새로운 시작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올바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출력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GPT의 한계는 ‘전제’의 불연속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GPT는 전제를 전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해방기념시집』에 대한 서지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방기념시집』의 개념을 정립(대전제)한 다음, 사용자의 프롬프팅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학습(명제)했음에도 불구하고, GPT는 자신의 의견을 끊임없이 수정해 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정보의 불확실성보다는 담화 구성에서 강조된 조문(措文)의 우연성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GPT를 사전학습 시킬 때¹⁵⁾는 전제가 아닌 정리 중심으로 대화를 구성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개념이 입력된 상태이지만 GPT가 만들어내는 문장들은 개념에 대한 전제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단어 혹은 명령어를 전제로 생성되는 정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한계를 바탕으로 『해방기념시집』을 꾸준히 학습시키고 오류적인 출력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GPT의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현재로서 GPT-4의 재창작을 모델링할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해방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고,
길가에 밝은 빛이 떨어진다.
자유의 꽃이 한창 피어나며,
좌우 구분 없는 손이 함께한다.

15) 토큰수의 한계가 있는 ChatGPT의 인컨텍스트 러닝(In-context Learning)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리학습을 통해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하며, 모델링을 반복해야 한다.

회관 불빛이 반짝이고,
집집 문은 널리 열렸다.
책과 노래가 춤추며,
나라의 미래에 소망을 노래한다.

말 두렵지 않고,
말 믿음을 가슴에 품어,
우리의 음성이 힘차게 울려 퍼진다.
이 땅에 씨를 뿌리며,
좌우의 손이 서로를 잡아준다.

해방의 감격이 흐르며,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

우리의 소망은 끝없이 퍼져,
자유와 노래가 새롭게 울려 퍼진다.
공복과 더부러 함께하지 않고,
사랑과 희망이 빛나는 이 땅에 산다.

깃발을 펼치며,
인민의 깃발이 자랑스럽게 펼쳐진다.
우리의 음성이 높이 솟아,
행복과 번영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 ChatGPT, 「한마음의 자유, 해방의 축복」 전문

인용한 시는 ChatGPT가 『해방기념시집』의 특징과 시집에 수록된 임화의 「길」을 학습한 다음 창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해방에 대한 감격의 감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한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어 ‘해방기념시’에 걸맞은 내용과 분위기를 보여준다. 더불어 임화의 시 「길」에

등장하는 기표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깃발(“旗入발”)과 인민(“人民”) 등이 인유되어 등장하고 있다. 물론 “호을로 도라가는/길가에 밤비는 차가워/거름 멈추고 도라보니/會館 불빛 멀리 스러지고”와 같이 시의 도입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임화와 달리 ChatGPT는 “회관 불빛이 반짝이고,/집집 문은 널리 열렸다./책과 노래가 춤추며,/나라의 미래에 소망을 노래한다.”고 표현하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시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임화가 「길」¹⁶⁾에서 해방 이전 ‘동지’와 ‘군사’들에 대한 애도를 기반으로 시를 창작했다면, ChatGPT는 해방 이후의 감격적인 감정 상태와 기대감, 희망에 천착하여 시를 짓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시 출력 이후 뒤따르는 “이 시는 해방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단결된 한마음이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과 음악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자유와 행복을 주제로 한 시를 창작해 보았습니다.”라는 정리에서도 알 수 있듯, GPT는 사용자가 강조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편향성의 불가항력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해방기념시집』의 특징에서 강조된 해방에 대한 감격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시집의 골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습한 GPT의 관점에서는, 임화의 「길」이 보여주는 해방공간에서의 시인 특유의 입체적 사유를 다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시 말해, 출력된 시편은 해방 이전의 암울한 사실들에 대해 추체험하고 회고하는 애도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해방 이후의 상황에 집중하여 가정 상황을 만들고 이미지를 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시 창작의 조건에는 더욱 많은 전제 조건이 프롬프팅 되어야 한다. 가령 임화의 시와 흡사하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임화의 대표적인 작품과 시 세계, ㉡시인의 생애와 전기적 사실들을 모두 학습한 상태에서 ㉢『해방기념시집』에 수록된 작품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창작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16) 임화의 「길」은 부제로 ‘지금은 없는 戰士金에게’라 하고 있으며, 해방에 대한 기쁨보다는 광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떠난 동료이자 동지에 대한 애도를 포함으로써, “해방 직후 문학비평에서 주된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을 ‘자기비판’, ‘인민’, ‘민족’ 등으로 설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나 역사적 사실과 해방기 문단 및 집단 정체성을 논의했다.”(김민지, 앞의 글, 5면.)

시인이 특정 시기와 조건에서 미적 발전이나 미적 퇴보의 과정마저도 고려사항으로 덧붙여 학습시켜야 한다. 그러니 이쯤 되면 ChatGPT를 통해 특정 조건의 시를 재창작한다는 기획이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 그러나 GPT의 담화 구성 능력은 ‘탁월한 우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변별적인 전제 조건이 제시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¹⁷⁾ 따라서 본격적으로 다룬 AI 이육사·윤동주의 『해방기념시집』(가상)참여와 해방기념시 창작을 시도할 때에는 더욱 면밀한 프롬프팅 조건 설계와 사전학습 모델링이 이뤄져야 한다.

정리하자면, 『해방기념시집』을 주제로 한 ChatGPT와의 담화에서 보여준 GPT의 문면은 일반론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해방기념시집』이 내포하고 있는 고취된 감정 상태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전제 오류는 GPT의 담화 구성 능력이 개념화에 의한 구심점을 생성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강조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병치 조직된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기념시집』의 여러 개념 정리를 구심점으로 해서 정확한 정보들만 변별하게 오류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AI 이육사’와 ‘AI 윤동주’가 해방기념시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고한 교육 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즉 이와 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육사·윤동주의 해방기념시를 가정하고 추출하고 싶은 이유는, 작고 이전 그들의 시편들이 갖춘 지사(志士)적 특질들이 어찌면 가장 해방을 기념하는 시에 걸맞았기 때문이다.

17) 선행연구에서도 “ChatGPT에게 창작을 요구할 때, 프롬프팅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단어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단어의 단순 나열, 개념어의 직접 사용, 원작을 그대로 표절하는 등의 오류값을 드러”(박성준, 「‘AI 윤동주’의 시 창작에서 수사학적 적용과 실제(2) - ChatGPT의 은유와 환유 개념 학습을 중심으로」, 앞의 글, 371면.)였다. 그러나 이런 할루시네이션은 특정 시인의 시를 재창작할 때, 오류를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어적 충돌을 만들어내는 기표들의 분유나 습합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 『해방기념시집』에 참여한 24+2인의 시인: 이육사·운동 주의 AI 해방기념시

주지하듯 이육사와 운동주는 해방을 목전에 두고 작고한 저항 시인이다. 이들의 시편들이 지사적 면모를 띠고 있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일제강점기 말, 가혹한 억압 상황에서도 ‘해방’이라는 신념을 품고 시작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가령 이육사의 경우는 아나키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¹⁸⁾ 이육사는 의열단 단원으로서 직접적인 독립운동에 가담한 것음 물론이거니와 전환기 행동주의 사상과 시의 상관 관계를 몸소 실천한 저항시인이었다.¹⁹⁾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이원기, 이원일, 이원조도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이육사는 일본 흑우회와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에서 활동하며 아나키스트적 정신을 지향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나키즘은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와 함께 균등한 진영 세력을 과시하던 하나의 주된 사상으로, 이육사가 아나키스트/사회주의자로 활동했던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보다 실천적 의지가 강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운동주의 경우는 그의 생애에서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아니었으나 주요 시편 곳곳에서 추동되고 있는 ‘부끄러움의 정서’는 일제 억압에 대한 반대급부의 정동으로서 지사적 면모를 드러낸다. 주지하듯 운동주의 시에 드러난 다양한 의식 형태는 “부끄러움, 자기 성찰, 갈등, 고독, 기독교 정신, 민족의식, 실존적 윤리의식, 고향, 순교자 의식”²⁰⁾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운동주의 생활 공간이자 생존 공간

18) “이육사가 일본 유학 시절 흑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나 의열단 단원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한 것은 아나키스트로서의 자의식이 깊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동범, 「이육사의 사상적 실천 의지와 시적(詩的) 아나키」, 『비평문학』 제87호, 한국비평문학회, 2023, 385-386면.)

19) “이육사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의 정동, 즉 서구 교양의 정신으로써의 낭만주의를 이미 수혜 받은 상태에서 당대의 사상적 풍조였던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 혁명 정신을 혼재하여 자기화”(박성준, 「이육사 후기시의 연애시편: 「斑猫」와 「邂逅」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9권 1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12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정은경, 「운동주 시와 슬픔의 미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3권 2호, 한국

이었던 북간도는 그의 시적 발생론적 지리이라 여길만큼 그의 시 세계를 형성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운동주가 구가해온 시적 배경에는 북간도 기독교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곳’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된 삶의 낭떠러지에서 민중들(운동주가 속한 분파)에게 새로운 ‘사건들’을 가능하게 한 공간이었다.”²¹⁾고 평가할 만하다. 이 같은 공간 속에서 그에게 시는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고양된 괴로움을 미적으로 숙달시킴과 동시에 역사적 원체험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 의식을 표현하는 삶의 한 방법론이었다.

이 같은 관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육사와 운동주가 해방 이후에도 생존하였다는 가정 아래, 그들의 시편들을 가상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작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들에게 시창작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흔을 식민지 근대인으로서 망각할 수 없는 민족의식으로 전유한 것이었으며, 시인으로서 재현과 애도를 통해 주체의 윤리성을 담보해 나가려고 했던 원동력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식 혹은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이육사와 운동주가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도 생존했다면 여전히 시창작에 몰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육사와 운동주의 해방공간에서의 생존 가설을 설정하고, 단순 창작물에 대한 모방이 아닌 ‘창작 주체’에 대한 모방을 통해 새로운 해방기념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 이러한 상상은 시적 주체의 관점을 경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인들의 시편들을 학습하고 그와 유사한 시를 창작하는 과정과는 상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3.1. AI 시인의 프롬프팅 단계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작업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먼저 일차

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105면.

21) 김치성, 「운동주 시의 발생론적 根源 연구 : 북간도 기독교 공동체의 에큐메니컬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69집, 우리말글학회, 2016, 186면.

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는 프롬프팅에 관한 것들이다. 다시 말해 이육사와 윤동주의 시²²⁾를 GPT가 정확하게 이해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서 시인들의 시와의 수사학적 유사성 관계, 혹은 시적 전개에 있어 '새로운 시간'이 인입되었는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 '새로운 시간'이란 이육사와 윤동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으로 그들을 호명하는 동시에 역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낮선 공간' 속에서 그들의 시가 재현되는 배경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GPT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AI 이육사와 AI 윤동주의 구현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은 체계를 구축했다.²³⁾

AI 시인 프롬프팅 체계도(AI 이육사의 경우)		
1단계	<작품 학습> - 텍스트에서 사용된 단어와 수사법 기억하기 - 모든 텍스트는 한글로 변환하여 학습하기	<프롬프팅 예시> 시 전문 또는 구절을 제시한 후, "다음의 시들을 분석해줘"
2단계	<시 재창작> - 수사법 정해주기 - 연/행, 길이, 제목 등 정해주기 - 금지 단어 설정하기	<프롬프팅 예시> 앞에서 교육한 구절을 바탕으로 이육사 시를 재창작을 하려고 해. 1. 제목은 '무지개'로 해줘 2. 배경은 바다, 항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계절은 겨울이었으면 좋겠어. 3. 16행 이하로 5연 구성을 해줘 4. 은유법과 환유법을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5. 영탄법이 1~2개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6. '독립'에 대한 열망이 투사되었으면 좋겠는데, '독립'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상징으로 표현해줘. 7. 1인칭 화자가 등장해야 돼. 8. '목숨', '필사',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줘.
3단계	<결과 도출> 겨울 바다는 목숨을 삼키는 검은 꿈./항구를 향해 연기는 돛대처럼	

22) 이때 GPT 학습을 위해 활용한 이육사와 윤동주의 시텍스트는 각각 『이육사 전집』(깊은샘, 2020)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원본 대조 윤동주 전집)』(연세대학교출판부, 2006)의 원문으로 정하였다.

23) 해당 장에서 설계한 학습 프롬프팅은 경희대학교 현대시와 예술사 수업(23-1)에서 수강생들과 실제 프롬프팅 실습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본고는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논의를 전개한다.

솟아올라/얼음에 젖은 배는 내 마음을 가득 채워.//나는 무지개를 그리며
 필사적으로 꿈을 빚는다./그 꿈은 하늘을 건너 별빛에 젖은
 이슬처럼./어디선가 또 다른 하늘을 얻어, 이슬 젖은 꿈을 가꾸리다.//내
 가슴은 동굴보다 어두워져./하지만 한 봉오리 피려는 장미 벌레가
 좀치렀다./그래서 더 예쁘고 진정 덧없지 아니한가.//눈물은 밤을 따라
 강을 건너./나는 차디찬 강의 마음에 머물러./그리고 새벽 하늘 어딘가에
 무지개가 서면.//그 무지개를 밟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리라./그리하여
 나와는 또 흐르자, 부끄럽지 않게 흐르자./내 꿈은 여전히 바다를 활키는
 물새의 발톱처럼, 항상 앓는 나의 숨결처럼. (AI 이육사, 「무지개」 전문)

위의 표는 3단계에 걸쳐 AI 이육사 구현을 위해 프롬프팅 체계도를 설계하고, 그에 따라 대표작 「절정」의 특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강철로 된 무지개”를 활용하여 재창작한 결괏값 도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상술했듯이, ChatGPT는 대화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인컨텍스트 러닝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GPT에 이육사의 시 구절들을 교육한 다음 이 텍스트들이 갖는 일련의 표현적 공통성과 시적 특징을 분석하도록 했다. GPT는 이육사의 시를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주제 의식으로 파악했으며, 강, 밤, 하늘, 빛, 파초, 노을, 바다 등의 자연적 요소가 시적 배경을 이루고 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존재와 허무, 고독과 사랑, 희망과 절망 등을 대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김과 동시에 시적 정황을 심화시킨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GPT의 내용 정리가 물론 한 번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적 함정을 파악하여 객관적 사실만을 취사 선별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다.²⁴⁾ 따라서 1단계에서는 시인에 대한 객관적인 특징을 GPT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므로 최소한 3번 이상의 ‘재응답 기능’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2단계는 프롬프팅에서 가장 섬세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AI가 시를 재창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7가지 정도의 제한

24)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한 수사법 교육 방식에 자세한 논의는 박성준, 「AI 이육사의 수사법 구현 양상 연구(3) - 「絶頂」의 재창작과 「강철로 된 무지개」를 중심으로」, 225-234면 참고.

상황을 제시해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할 설정’²⁵⁾을 주어야 한다. 아무런 제한 상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육사의 시를 재창작해 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한다면 GPT는 이육사의 시적 표현이나 주제 의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GPT는 창작형 인공지능이 아니라 대화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대화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단어를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를 재창작하는 단계에서는 크게는 ㉠수사법 정해주기, ㉡연/행, 길이, 제목 등 정해주기 ㉢금지 단어 설정하기 등등 창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한 상황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GPT가 재창작한 AI 이육사의 「무지개」는 표에 인용된 결괏값과 같다. 이 시에는 이육사가 주로 시어로 사용했던 자연물들과 “덧없지 아니한가”와 같은 영탄법이 수사학적으로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새벽 하늘 어딘가에 무지개가 서면” “부끄럽지 않게 흐르자” “내 꿈은 여전히 바다를 활궤는 물새의 발톱처럼”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도 미약하게나마 시적 자아의 저항 의식이 드러난다고 판단할 만하다. 그러므로 AI 이육사와 AI 운동주의 해방기념시 창작도 위와 같은 프롬프팅 체계를 바탕으로 기획된다. 우선 창작 1단계에서는 GPT가 이육사와 운동주의 시를 학습한 세션에서 추가적으로 『해방기념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선별하여 학습시켰다.²⁶⁾

3.2. AI 이육사의 해방기념시

먼저 이육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육사의 대표작 가운데 저항 의식,

25) 1단계 교육 이후, “너는 이제 이육사 시인이야.” 혹은 “이제부터 이육사 시인이 되었다고 역할을 부여할게”, “교육한 구절을 바탕으로 이육사 시를 재창작할 거야” 등 적절한 프롬프팅으로 ChatGPT에게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26) ChatGPT에 학습시킨 『해방기념시집』 작품은 다음과 같다. 여상현의 「봄날»,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이현구의 「소박한 노래», 이희승의 「영광 뿐이다», 임화의 「길», 홍명희의 「눈물 섞인 노래», 김광섭의 「속방과 해방», 이병기의 「나오라», 이하운의 「동포여 다함께 새아침을 맞자」 등의 작품들이다. 모든 시편을 학습시킬 수 없는 이유는 이전 텍스트를 GPT가 인식할 수 있는 길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더불어 『해방기념시집』의 주제 의식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을 학습시킬 필요는 없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광야」, 「절정」, 「꽃」, 「해조사」 등을 선정하여 학습시킨다.²⁷⁾ 이에 따라 GPT는 이육사가 민족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염원을 자연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육사의 시에서 자연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자연을 매개로 민족 정서를 드러냈다고 하기에는 다소 1차적인 비평적 시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색한 결괏값이나 빈약한 답안을 출력했을 경우, 대화 학습을 통해 해당 작품들의 주제 의식을 차례로 교육한 뒤 다음 단계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후 『해방기념시집』의 작품들을 입력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시켰다. 그 결과 GPT는 『해방기념시집』의 주제 의식을 조선의 해방 이후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민족의 아픔에 대한 기억으로 해석해냈으며, 이 과정에서 해방의 의미를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 8월 15일로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시가 수록되었다’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출력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바로잡는 대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오류 수정 교육 과정을 통해, 이육사의 시와 『해방기념시집』의 시를 학습시킨 GPT 세션 상황에서 2단계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주지하듯 2단계의 목적은 앞서 입력한 시편들을 토대로 이육사의 해방기념시를 창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

27) GPT에 이육사의 시를 학습시킨 다음 『해방기념시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해방기념시를 창작하게 했을 때에는 GPT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내놓는다.

<입력> “이육사 시인이 해방을 맞이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시를 썼을까? 이육사 시인 풍으로 해방기념시를 창작해 줘.”

<출력> “해가 뜨는 동쪽에서 불어온/새로운 바람, 그것이 바로 해방이라네/잠들어 있던 마음들이 깨어나는 소리./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네//해방, 그것이 오늘의 이름/무거운 사슬이 끊어진 날/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이 바로 자유/우리의 두 눈에 비친 희망이여//묵묵히 걸어온 길, 그곳에 해방이 있네/사슬을 끊고, 새로운 꿈을 품고서./우리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네(하락)”

- AI 이육사, 「자유로운 향연」 부분

위 창작시의 경우 이육사의 시적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며 『해방기념시집』에 나타난 미래에 대한 기대나 해방에 대한 감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

건을 제시했다.

- (1) 고조된 기쁨과 열망을 표현하는 강렬한 어조로 시를 창작할 것.
- (2)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의지를 드러낼 것.
- (3) 그러나 '민족', '공동체', '회복'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어로 대체할 것.
- (4) 시어에 '동방', '환희'와 같은 한자어와 '툰도라', '왈츠'와 같은 서구 외래어들을 활용할 것.
- (5) 시구의 종결 어미는 '-라', '-이여', '-하랴' 등의 영탄적 어조를 사용할 것.
- (6) 창작시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뜻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표현할 것.

여기에 제목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육사가 『해방기념시집』에 참여하여 시를 창작한다는 가정 아래 모방시가 아닌 새로운 시를 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결괏값은 다음과 같다.

동방의 빛이 새 세상을 비추니
땅은 희미한 꿈에서 깨어나,
툰드라처럼 얼어붙었던 심장들이
물결치는 왈츠처럼 흔들리며 살아나리라.

동포여, 이제는 묵묵한 속삭임이여,
서로의 손을 잡고, 거센 바람에 맞서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
그대들의 눈물과 피로 적은 흙 위에서
새로운 세상의 씨앗을 뿌려라.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함께 춤추리라.
희망의 꽃이 만발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대들의 눈물이 이 땅을 적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리라.

어둠이 가고, 새벽이 밝아올 때,
그대들의 노래는 하늘에 울려 퍼질 것이요,
희망의 꽃이 만발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대들은 눈물을 닦고 웃음을 띠리라.

동방의 빛이 새 세상을 비추니
우리는 희망의 꽃으로 이 땅을 물들이리라.
화려한 봄이 찾아오는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함께 꽃이 피는 세상을 그리며 살아가리라.

- AI 이육사, 「동방의 꽃」 전문

이 시는 AI 이육사가 「동방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해방기념시집』의 주제 의식을 담아 이육사의 시적 세계를 투영해 창작한 결과물이다. 이 시의 주조를 이루는 핵심은 “동방”과 “꽃”이다. 동방은 한반도를 상징하는 공간적 배경이며 “꽃”은 ‘새로운 시간’에 놓인 희망적 존재로서 미래 전망에 대한 영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희미한 꿈”에서 깨어난 “땅”은 한반도의 광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툰드라처럼 얼어붙었던 심장”은 해방공간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한민족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연에서부터 조국 해방과 광복에 대한 기쁨의 정동이 시편 내부에서 추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연에서는 “동포”라는 타자를 호출해낸다. 동포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공동체로서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를 다시금 스스로 개척해내야 하는 ‘공동체적 과제’를 마주한 주체이기도 하다. 이들을 통해서 뿌려진 “새로운 세상의 씨앗”의 의미는 곧 “희망의 꽃”이자 “동방의 빛”이며 “화려한 봄”의 기표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AI 이육사가 그려낸 광복 이후의 이육사의 시는 공동체로서의 민족정신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상하는 “희망의 꽃”으로써 자주적 회복을 염원하고 있는 정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꽃이 피는 세상을 그리며 살아가리라”는 표현처럼 이념적 대립보다는 민족적 화합을

중심으로 해방공간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이육사가 생전에 지향하였던 사상과도 상통한다. 주지하듯 그는 아나키스트로서의 이데올로기적 해방과 민족공동체에 대한 애정, 혹은 동포애를 그간 시편에서 함양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기는 했으나 말년에는 좌우의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중국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물은 비록 ‘이육사의 『해방기념시집』 참여’에 대한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주목해 볼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동방의 꽃」에서 AI 이육사는 끊임없이 미래 지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광복’, ‘해방’이라는 확정적인 사실과 현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육사 시의 특징을 학습한 GPT가 이육사가 감지하는 해방공간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이육사의 시 세계를 주조하고 있는 이상 세계에 대한 열망과 그 의지를 투철하게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조국 해방에 대한 ‘유토피아적 낭만성’²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GPT의 텍스트 알고리즘이 후자에 의한 해석의 결과라면, AI 이육사가 인지하는 해방공간은 냉전 체제의 축소판이었던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을 염려하고,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해방이라는 미완의 과제로부터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는 희망적 시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유추가 가능해진다. 이런 결과는 해방공간에서 가상의 이육사가 품었던 새로운 비전일 수도 있었다고, 판단해볼 만하다.

3.3. AI 운동주의 해방기념시

다음으로는 운동주의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한 프롬프팅 체계를 따라, GPT는 운동주의 시를 먼저 학습한 다음²⁹⁾ 『해방기념시

28) 박주택, 「이육사 시의 낙원 의식 연구」, 『어문연구』 제68집, 어문연구학회, 2011, 453-481면; 김경복, 「이육사 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학회, 2016, 93-130면.

29) GPT에 운동주의 시를 학습시킨 다음 『해방기념시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해방기념시를 창작하게 했을 때 GPT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내놓는다.

집』의 시들을 학습했다. 이에 대한 정리 후, 2단계 과정을 수행하며 운동주의 해방기념시 창작을 위해 제시했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시의 분량을 5연 20행으로 할 것.
- (2) 행사에서 낭송할 기념시의 어투를 반영하되, ‘~하여라’, ‘~하리라’ 등의 강렬한 어투를 쓰지 말 것.
- (3) 자기 성찰적 태도를 반영할 것.
- (4) 그러나 ‘자기 성찰’, ‘부끄러움’과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 (5) 이국에서 맞이한 봄날이라는 상황을 설정할 것.
- (6) 일제강점기 때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
- (7) 육첩방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상황으로 배경을 설정할 것.
- (8) 1인칭 화자로 시를 쓸 것.
- (9) '꽃'이랑 '햇빛'이랑 '검은 옷'이라는 시어를 꼭 사용할 것.

운동주의 경우에서도, 역시 제목은 따로 설정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의 창작을 시도해 보았다.

해방의 봄날에 이국 땅에 머물러
 나는 육첩방의 창을 바라본다
 햇빛은 천천히 창밖으로 스며들고
 아침의 선율은 잠들어 있던 내 마음을 두드린다

바스락거리는 꽃잎 창가에 놓여진다

<입력> “운동주 시인이 해방을 맞이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시를 썼을까? 운동주 시인 풍으로 해방기념시를 창작해 줘.”

<출력> “새벽 별빛이 새어 들던 그 순간,/하늘에서 흘러내린 자유의 노래가/검은 땅에 퍼져가는 순간이었네.//서리 묵은 철사 너머로,/희망의 빛이 스며들던 그 순간,/속삭이던 꿈들이 하나 둘 깨어나는 순간이었네.//우리들의 숨결로 채워진 공기,/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던 우리들의 눈빛,/그것이 바로 해방의 날이었네.(하략)”

- AI 운동주, 「해방의 날」 부분

위의 창작시의 경우도 운동주의 시풍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창작의 한계를 보여준다.

봄의 향기에 내 마음은 무거워진다
공기 속에 흩날리는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없지만

꽃이 피었네 마침내 봄이 오고
햇빛이 내린다 검은 옷 위에도
그들의 희생을 내 가슴에 새기며
나는 세상에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얼굴들이 보인다
희생된 그들 이 봄날을 기다렸겠지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불러보면
햇빛 아래 꽃들이 한층 더 빛나는 것 같다

봄날이 왔다 이 땅에 자유가 왔다
햇빛을 받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나는 계속 노래할 것이다
봄날이 왔다 그들이 기다렸던 봄날이.

- AI 윤동주, 「봄날」 전문

AI 윤동주의 「봄날」은 ‘봄’의 원형 상징성을 중심으로 시적 전개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봄은 ‘해방에 대한 기쁨’과 ‘희생된 민족에 대한 애도’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주목해서 볼 사실은 “봄날”을 맞이한 시적 화자의 공간적 배경이 “육첩방”이라는 점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윤동주, 「자화상」)의 표현을 전유한 이 대목은 단순히 ‘육첩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한 프롬프팅을 따른 결과는 아니라서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한다. 그간 윤동주의 시에서 하강 정서를 함의하고 부끄러움의 원천적 공간이 되었던 ‘육첩방’이 해방공간으로 전이되자, “햇빛은 천천히 창밖으로 스며들고” “아침의 선율은 잠들어 있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긍정의 장소로 거듭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GPT가 프롬프팅 과정을 통해 의미와 문장을 조합할 때 일종의 연산 규칙에 의해 우연성을 발휘한 결과이다. 질문자가 기획하고 주문하

지 않은 부분까지도 ChatGPT는 구현해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할루시네이션의 긍정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봄날」은 1연에서 표현된 기쁨과 달리, 2연에서는 슬픔의 정서를 함께 제시한다. 해방공간은 민족해방이라는 긍정의 분위기와 이를 위해 자행되었던 수많은 죽음에 대한 부정의 분위기를 양가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공간이자, 미래 전망을 예기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운동주의 「봄날」은 마냥 기쁘기만 한 ‘봄날’은 될 수 없으며, “바스락거리는 꽃잎 창가에 놓여”지는 순간으로 감각되는 “봄의 향기”는 시적 주체에게 ‘상실의 슬픔’과 ‘민족공동체에 대한 애도’의 정서를 동시에 환기시킨다. “햇빛이 내린다 검은 옷 위에도”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해방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않고 도래하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봄날이 왔다 이 땅에 자유가 왔다”는 화자의 선언은 삶과 죽음을 모두 포용하는 ‘사랑’으로 승화되며, “계속 노래할 것이다”라는 의지로 표명된다.

아울러 AI 운동주의 「봄날」도 AI 이육사의 「동방의 꽃」과 동일하게 읽어낼 수 있는 문면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 시에서도 이념적 대립이 드러나지 않으며, “그들”과 같은 민족공동체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시의 중심 시어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AI 이육사의 시와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은 시적 어투나 시어의 사용에 있다. 물론 이육사와 운동주가 가지고 있는 시적 특징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수월할 수 있다. AI 이육사는 이육사 시의 덕선이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반면에, AI 운동주는 운동주 시의 덕선을 그대로 살리지 못한 면이 한계로 드러난다. 수사적 측면에서도 AI 이육사는 적절한 차용이 일어난 것과 달리 AI 운동주는 단어 수준의 활용으로 그치는 결핍감을 보여준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시적 특징을 GPT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지점을 이 실습 설계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육사와 운동주가 해방공간에서도 생존해 있었다는 가설을 전제로 GPT를 통해 구현한 AI 이육사와 AI 운동주가 창작한 『해방기념시집』의 시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했다. 현재까지도 ChatGPT는 대중적 화제성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 GPT 모델 또한 개인용, 기업용과 더불어 다양한 버전 및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기능의 한계가 문제점들을 다시금 실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AI의 창작시가 갖는 한계나 창작에 대한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여전한 문제점을 실감하면서도 이육사와 윤동주를 해방공간으로 이입시키는 상상적 과정을 실제적 텍스트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의 문학적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지점이라 평가해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데이터 처리 비용이 절감되어, SIA와 같은 창작형 인공지능이 오픈소스 형식으로 배포된다면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전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인공지능을 통한 근대문학의 상상 영역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4. 결론

본 논문은 해방 이전에 작고한 두 시인, 이육사와 윤동주의 해방기념시를 ChatGPT 기술을 응용해 시연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육사와 윤동주의 '해방공간'이라는 상상력을 실제 텍스트로 창출해냄으로써 AI 기술의 문학적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물론 ChatGPT가 이육사와 윤동주의 『해방기념시집』을 전제한 상태에서 AI 이육사와 AI 윤동주를 구현함에 있어서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그 한계는 이육사와 윤동주의 시적 상상력이 단절된 공간에서 그들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시세계를 변모시켜 나갔을지에 대해 유고작품에 나타난 시풍을 토대로 창작해낸다는 사실이 갖는 한계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I 이육사와 AI 윤동주가 각각 써낸 해방기념시는 「동방의 꽃」과 「봄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있다. 먼저 「동방의 꽃」은 이육사의 아나키즘적이면서도 남성적이고 이상 세계에 대한 의지를 '동방'이라는 공간과 '꽃'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다 명징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봄날」 또한 해방 이후의 '육첩방'에서의 상황 제시를 통해 일제강점기 하에서 부정적이었던 공간이 희망과 더불어 희생된 민족을 애도하는 공간으로 승화되는 지점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윤동주만의 특

징을 갖는다.

텍스트 자체에서 보여주는 이육사와 윤동주의 시적 세계를 인공지능이 그려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더불어 이 작업은 근대문학을 인공지능으로써 다시 읽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동시에 수반한다. 앞으로 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근대문학 텍스트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사례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문학 텍스트를 올바르게 학습시키고 그에 따른 산출물을 학술적 가치로 전유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프롬프팅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ChatGPT를 통한 이육사와 윤동주의 해방기념시 창작 작업은 바로 이 같은 프롬프팅 설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과정 위에 놓여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Study on AI the Dead Poet Creation using ChatGPT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d using classes to
commemorate the liberation of AI Poets Lee Yook-sa and Yoon
Dong-ju

Park, Seung-Jun(SEOULTECH.)

This study is.... (스타일의 '초록본문') This project assumes a hypothetical scenario where AI, trained on the works and life histories of anti-Japanese resistance poets Lee Yook-sa and Yoon Dong-ju,, participates as authors in the recreation of the "Liberation Commemorative Colle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AI-generated "Liberation Commemorative Poetry,"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AI poetry creation and reflect on its limitations.

The texts "Eastern Flower" and "Spring Day," written by AI Lee Yook-sa and AI Yoon Dong-ju,, respectively, demonstrate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Eastern Flower" vividly expresses Lee Yook-sa's anarchistic and masculine will towards an ideal world through the space of the "East" and the symbol of "flower." "Spring Day," on the other hand, depicts a transformation from a negative space in the era of Japanese imperialism, represented by the "Room of Confession," into a space of mourning for the sacrificed nation, filled with hope, after liberation. This highligh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Yoon Dong-ju,'s poetry.

The creation of Liberation Commemorative Poetry by AI Lee Yook-sa and AI Yoon Dong-ju, through ChatGPT lays the

groundwork for virtual creation and prompts the design of modern literature's new imagination,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innovative prompting in literary creation.

Key words : AI, ChatGPT, Lee Yook-sa, Yoon Dong-ju, Liberation Commemorative Collection, Liberation Space, Resistance Poetry, Liberation Commemorative Poetry

[참고문헌]

■ 기본자료

ChatGPT(<https://chat.openai.com/>)

■ 단행본

정인보 외, 『해방기념시집』, 중앙문화협회, 1945.

이육사, 김용직 편,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20.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원본 대조 윤동주 전집)』,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경복, 「이육사 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학회, 2016.

김민지, 「『해방기념시집』에 나타난 감정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8호, 한국현대 문예비평학회, 2023.

김치성, 「윤동주 시의 발생론적 根源 연구 : 북간도 기독교 공동체의 에큐메니컬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69집, 우리말글학회, 2016.

박성준, 「AI 윤동주'의 시 창작에서 수사학적 적용과 실제(2) - ChatGPT의 은유와 환유 개념 학습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98호, 우리말글학회, 2023.

, 「AI 이육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론(1) -인공지능과 문학적 담화 기능 구축 사례 제언」, 『한국문예창작』 제22권 제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3.

, 「AI 이육사의 수사법 구현 양상 연구(3) - 「絶頂」의 재창작과 '강철로 된 무지개'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89호, 한국비평문학회, 2023.

, 「이육사 후기시의 연애시편: 「斑猫」와 「邂逅」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9권 1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박주택, 「이육사 시의 낙원 의식 연구」, 『어문연구』 제68집, 어문연구학회, 2011.

심선옥, 『해방기 기념시집 연구--“해방”과 “3·1” 표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4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이미나, 「동아시아 냉전 질서 형성과 해방 직후 ‘공간’ 연구」, 『구보학보』 제22집, 구보학회, 2019.

이종식,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시스템에 대한 편향성에 관한 연구-챗GPT 중심으로」,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23권, 한국감성과학회, 2023.

정은경, 「윤동주 시와 슬픔의 미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3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조동범, 「이육사의 사상적 실천 의지와 시적(詩的) 아나키」, 『비평문학』 제87호, 한국 비평문학회, 2023.